2026년 10월 23일(금) 구역예배 자료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 사도행전 6장 1~7절**
(1)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가 320장을 부릅니다. (2) 구역 식구 중 한 분이 기도합니다.
(3) 사도행전 6장 1~7절(신196)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4)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5) 찬송가 67장을 부르고, 봉헌한 이후 봉헌기도 합니다. (6)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구역예배를 마칩니다.
〈인터넷 참조〉 http://www.pckyesan.or.kr으로 접속, 10월 18일자 주일예배 말씀

<생각하기>

요즘 우리나라나 지구촌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중의 하나가, 바로 두 집단 간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 가정, 학교, 직장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가족 공동체로 모인 교회 안에서도, 갈등은 발생합니다.

<설교의 요약>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교회가, 교회의 일곱 일꾼을 세우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집사로 불리는, 이 일꾼들을 세우게 된 배경에는, 교회 안에서 발생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교회 내에 있는 과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과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생계유지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노인들을 위한 연금이나 보험 제도나, 무료 교통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나, 노인 일자리 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든 과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이런 과부들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을 지고,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회의 구제 사역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누락되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과부들이 많았던 이유는, 다른 헬라어 사용 지역에서 살았던 과부들이, 이제 남은 생을, 본토에서 살다가, 선조들과 함께 묻히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크게 두 그룹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은, 문화와 언어와 관습과 삶의 배경이 서로 달라,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u>하나는,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u>.

우리는 초대교회를,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델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교회에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교회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교회 또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는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u>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른 한 가지는, 초대교회는, 발생한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것입니다</u>.

우리 함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구절에 의하면, 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 사역의 주체가, 열두 사도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교인들 모두를, 다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는데,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많은 과부들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을 돌보다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한계와, 자신들이 미처 돌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집사를 세워, 갈등의 이유가 되었던, 구제 사역을 위임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고, 교인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세워진 일곱 집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은,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구제 사역을 위해 세워진 일곱 집사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인적 구성 비율상, 히브리파 유대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헬라파 유대인들만 집사로 선출된 것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몰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고의적이었든, 무의식적이었든,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소외시켰던, 자신들의 편협함을 깨닫게 된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수정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주도권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도권을 양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가족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주신 말씀을 따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 됨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예산의 구역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기>

1.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경험했던 일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나누어 봅시다.
2.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 됨을 이루는 일에 귀한 통로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잘못하는 부분이나, 나의 편협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실 때, 겸손하게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른 모습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바라봄으로, 정죄하고 미워하는, 좁은 마음을 버리고, 같은 점을 확대하여 바라봄으로, 나와 다른 점을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